

“그리고 아침 해독주스에 살구분말을 8g 추가 하여 아침과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종이(동충하초와 한약제 분말 된 것)를 일일3회 1회에 15g씩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.”

저의 이야기를 메모하던 이 선생님은 많아지는 약 설명을 들으면서 말쑼을 했습니다.

“약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…….”

“그렇지는 않습니다. 간에 해당하는 것은 3개월간만 조절하시면 간과 폐 쪽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 입니다.”

2018년 3월의 봄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희망으로 시작 했습니다. 이 선생님이 나이가 있어서 젊은 사람보다는 암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치료하는데 한결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

2018년의 4월에 이 선생님에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.

“서안에 공기도 안 좋고 해서 잠시 해남도에 있는 친구 집에 요양하러 가려고 하는데, 물론 부인하고 같이 가서 직접 음식을 해먹으니 음식 걱정을 안 해도 되고……”

“그러면 다녀오세요……..싱싱한 해남도의 해산물에 육신내시면 절대 앓됩니다”

“걱정하지 말게나”

“수소기계와 정보 유엠 그리고 정보카드도 잘 들고 다니시고요”

“정보유엠은 내 생명과 같은 것인데…… 해남도에 친구가 파킨스가 있어서 수소기계로 같이 치료하려고 하는데…좋은지”

“좋은 생각 입니다. 그리고 뇌에 관계 되어지는 정보유엠도 가져가서 친구분과 우정을 나누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”

“하하하하…내가 오후에 병원에 잠시 들리겠네. 뇌 질환에 좋은 정보유엠과 카드를 준비해주게나 “